

매번 고민만 하던 울릉도 여행, 이젠 1박2일로 다녀오자

울릉도 KTX 레일업 28일 출시

서울 6시50분 출발...약 8시간 소요
현지투어·숙소 최대 60% 제휴할인

누구나 한번쯤 가보기를 희망하는 '신비의 섬' 울릉도. 동해 청정해역의 맑은 바다와 화산섬 특유의 지형이 어우러진 울릉도의 풍경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비경이다. 하지만 3시간 넘게 배를 타고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도시까지 이동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 늘 걸림돌이었다. 코레일이 동해선 KTX와 울릉도 여객선을 묶은 '울릉도 KTX 레일업'은 이런 울릉도 여행의 문턱을 크게 낮춘 아이디어 상품이다. 28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KTX를 이용한 울릉도 여행을 미리 경험해 봤다.

●서울역 6시50분 KTX...울릉도 여행 시작
'울릉도 KTX 레일업'의 시작은 서울역이다. 서울역에서 매일 아침 6시50분에 출발하는 KTX 803편이 포항까지 간다. 소요시간은 2시간30분. 봄기운이 완연한 청바 경치를 구경하거나 아침 일찍 나오느라 피곤한 몸을 달래기 위해 잠을 청하다 보면 어느새 포항역에 도착한다. 포항역에서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

까지는 택시로 10분 정도,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한번 갈아타야 한다.

●3시간여 뱃길...기상 따라 복불복
울릉도 여객선은 현재 포항, 묵호, 강릉에서 출발한다. 출발지와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에 따라 동동, 저동, 사동 등 울릉도 내 도착 항구가 다르다. KTX와 연계된 우리누리호는 저동항으로 간다. 터미널에는 늦어도 출발 30분 전에 도착해야 하고,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다. 10시50분 포항을 떠난 배는 날씨가 좋으면 오후 2시10분 울릉도에 도착한다. 저녁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섬내 관광투어 한 코스를 즐길 수 있는 시간대이다.

다만, 울릉도 여행의 성패는 날씨가 좌우한다. 기상에 따라 여객선이 결항할 수도 있는데다 예정대로 출항한다고 해도 날씨에 따라 쾌적한 여행이 될지, 고난의 뱃길이 될지 엇갈린다. 실제로 이번에 울릉도로 갈 때는 새벽 강풍경보의 영향을 받아 도착도 예정보다 늦고 많은 승객이 멀미를 경험할 정도로 힘들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거울처럼 잔잔한 바다에서 저무는 석양을 느긋히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 안락했다.

●울릉도 투어와 숙소...레일업 제휴할인
코레일의 울릉도 레일업은 기본적으로

로 왕복 교통편만 제공하는 자유여행 상품이다. 대신 다양한 제휴할인을 통해 울릉도 현지 투어와 숙소를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울릉도는 숙소가 한정돼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 올 경우 방 구하기가 쉽지 않다. 코레일은 숙소의 경우 레일업 이용 고객에게 주중 최대 60%의 제휴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울릉도관광의 필수 코스인 묵도 투어도 레일업 상품과 연계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주말 이용한 실속 1박2일 일정 가능
울릉도에 도착해 원하는 기간만큼 자유여행을 즐긴 뒤 돌아올 때는 매일 오후 3시40분 저동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을 이용한다. 이번 취재의 경우 토요일 도착해 당일 오후 투어와 다음날 점심 때까지 섬 투어를 즐기고 오후에 승선하는 1박2일 일정이었다. 울릉도의 매력을 완벽히 느끼는데 부족할 수도 있지만, 주말을 활용한 실속코스로는 꽤 알찬 일정이다.

오후3시40분 저동항을 출발한 배는 7시쯤이면 포항에 도착한다. 곧바로 포항역로 가서 오후 8시 출발 KTX를 타거나 아니면 포항서 하루밤을 묵으면서 여유롭게 저녁을 즐긴 뒤 다음날 오후 2시8분 KTX로 올라올 수도 있다.

울릉도 |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서울역 오전 6시50분 출발



포항역 오전 9시20분경 도착



오전 10시50분 우리누리호 타고 울릉도 출발



포항역에서 포항 여객선 터미널까지 택시로 약 10분



날씨가 좋으면 오후 2시10분경 울릉도 저동항 도착

울릉도 '따개비 칼국수' 구수한 국물이 일품

따개비 칼국수(사진)에서 홍합밥, 명이엇까지. 울릉도는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다양한 향토 먹거리로 유명한 곳이다. 사면이 바다인 섬이다 보니 싱싱한 해산물은 기본이고 섬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나물들도 방문객들의 인기가 높다.

울릉도 내 식당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홍합밥은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라면 한번은 먹어보는 대표적인 메뉴이다. 홍합살이 실하게 들어간 고슬고슬한 밥이 나오는 식단으로 지역 특산품인 명이나 부지깥이나물 등과 함께 먹는 맛이 괜찮다. 따개비 칼국수는 해안 갯바위에 붙어있는 따개비로 국물을 내고 호박, 미역 등을 섞어 끓인 소박한 먹거리다. 구수한 맛과 함께 근력과 기력보장에 좋은 영양소를 갖추고 있다.



이제는 울릉도를 대표하는 특산물 중 하나가 된 명이는 요즘 사탕, 젤리, 엿, 빵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도 만날 수 있다. 명이 특유의 알싸한 향을 사탕이나 엿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울릉도 | 김재범 전문기자

결혼의 계절...호텔·여행업계 '바쁘다 바빠'

본격적인 결혼 시즌이 다가오면서 웨딩시장을 겨냥한 호텔과 여행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서울 역삼동 리즈칼튼 서울은 29일 그랜드 볼룸에서 '뉴 블랑쉬(Nuit Blanche)'를 테마로 한 웨딩페어를 개최한다. '백아'라는 뜻의 '뉴 블랑쉬' 웨딩

페어에서는 결혼식에서 가장 선호하는 흰색에 해의 백야페스티벌의 이미지를 접목해 린넨과 꽃장식 등에 응용하는 트렌드를 소개한다. 이번 웨딩페어에서는 결혼식을 웅장하게 표현해주는 최신 미디어 아트 기법 프로젝션 맵핑 기법을 소개한다.

하나투어도 웨딩서비스 브랜드인 H 웨딩을 통해 제공하는 '다이렉트 셀프 웨딩 패키지'와 '웨딩&허니문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다. '다이렉트 셀프 웨딩 패키지'는 예비 신랑신부가 필요한 사항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맞춤형 결혼 컨설팅이다. '웨딩&허니문 페스티벌'은 허니문, 결혼식, 혼수 등 '결혼' 관련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관광공사 '한식가이드' 머큐리 어워드 대상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한식가이드 북(HANSIK·사진)'이 '2015-2016 머큐리 어워드' 일반간행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식가이드북은 '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에서 한식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로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지난해 제작

했다. 엑스포 한국관의 콘셉트에 맞춰 한식에 담긴 철학과 과학, 다양한 한식의 특징과 문화를 외국인들이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의 자연저장소인 '독'부터 김치와 각종 양념, 조선시대 영조의 탕평

책을 상징하는 탕평채, 왕의 장수를 기원하며 만든 타락죽 등 궁중요리와 종가음식, 사찰음식 등을 소개했다. 또한 궁중음식체험식당, 종가음식을 재현한 '음식디미방', 발우공양·다도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길거리음식·음식축제·향토음식 등 체험관광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위니아 초절전 냉·난방기

유지비 만으로 기계값 이?!

교회,업소,공장 방문완벽설계

초절전 1등급에너지효율 초절전 냉·난방기

난방+냉방 한번에 해결!

전속모델 김유정

여기서 구매하셔야 하는 이유!!

- ▶ 초기비용 '0' 최장 36개월 할부
- ▶ 보유카드에 따라 무이자혜택
- ▶ 업소, 사무실, 가정용 다양한 모델보유
- ▶ 전문설치팀이 원하는 일자에 신속설치
- ▶ 믿을수 있는 위니아 본사직판

- ☑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 ☑ 본사 전국 유통망의 확실한 A/S
- ☑ 무더위·강추위에도 탁월한 냉,난방능력
- ☑ 저소음 컴프레서 장착으로 조용조용
- ☑ 제습기능으로 습기찬날에도 뽀송뽀송

담채의 기술력 그대로! 부담없는 초절전시스템! 위니아 초절전 냉·난방기

• 소형~대형평형,모든 업소와 사무실에서 탁월한 효과
• 멀티, 천정형, 시스템에어컨등 모든 사양보유
• 어떠한 건축,실내구조에도 설치가능

강력
냉방

강력
난방

강력
제습

냉난방기 전문판매기관 소선공조

문의 ☎ 1522-2321 (전국어디서나)